

날짜: 5786 년, 11 월 23 일 (2026 년 2 월 10 일)

토라 문: Mishpatim (규례들)

주제: 공정의, 의도와 인간의 존엄의 상관 관계

출애굽기 21:20-21 은 토라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주인이 종을 쳐서 종이 즉시 사망하면 주인이 "반드시 형벌(복수)을 받으리라"고 규정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생존하면 주인이 처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구분은 종을 단순한 물리적 재산으로 격하시키고 심각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인들의 구전 전통의 기록들은 일관되게 이 구절을 학대에 대한 도덕적 승인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표준과 고의성에 근거하여 사형 집행을 정하는 엄격한 절차적 규칙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결정적으로 구분 시키는 요소는 종의 생명 가치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살해 의도의 확실성의 유무" 입니다. 토라 법에서 사형을 내릴때는 한 영혼의 죽음이 치명적인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곧 즉각적인 사망은 타격 자체가 본질적으로 치명적이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살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연된 사망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 여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즉, 최초의 타격은 치명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사망은 직접적인 의도보다는 합병증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각적 사망과 지연된 사망의 구분은 토라와 그 설명에 있어서 그 법의 다른 곳에서도 직접적 인과관계와 간접적 책임을 구분하는 기초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추가 해석적 틀은 탈무드, 특히 산헤드린(Sanhedrin) 52b 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피해를 가한 주인의 면책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현인들은 종이 일어나 기능을 회복할 정도의 기력을 되찾고 최소 24 시간을 생존한 경우에만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종이 회복하지 못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자리에 누워 있다면, 주인은 살인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토라의 언어는 포괄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회복이 실패하는 순간 무너지는 좁은 의미의 증거적 추정을 상세히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문구는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 이러한 실체적 법적 논리 안에서 기능합니다. 토라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자산을 파괴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살인 "의도"에 대한 추정을 약화시키지만, 책임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바바 캄마(Bava Kamma) 85a 에서 설명하듯이, 주인은 노동력 상실,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해 광범위한 금전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의 불확실성" 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중세 주석가의 기록들은 이러한 제한적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븐 에즈라(Ibn Ezra)는 이 구절이 윤리적 평가가 아닌 사법 절차에 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법정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을지라도, 도덕적 유죄 판결과 그 책임을 치루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람반(Ramban) 역시 지연된 사망은 타격이 본질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면서도, 여호와 엘로힘의 공의는 결국 인간이 내린 법정 판결의 한계를 넘어 그 한 인간의 잘못을 공정히 다스릴 것이라고 설명을 더합니다.

이 법적 전통은 마이모니데스의 미쉬네 토라(Mishneh Torah) 법전화 과정에서 가장 제한적인 형식에도 달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훈육 차원의 힘이 사용되고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폭력이 없을 때만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치명적인 도구의 사용, 비정상적인 완력, 명백한 잔혹 행위 등의 그 어떤 일탈이라도 발생하면 완전한 형사 책임이 전가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가해자 주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면책이 설 자리를 거의 남겨두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21 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 바로 뒤에 토라는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할 경우 종을 즉시 해방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러한 법적 명령은 토라의 더 넓은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 목적은 주인의 폭력을 억제하고, 종의 인간적 존엄성을 법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차 주인이 종에게 저지른 학대에 있어서 엄중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공정성의 저울에서 재어 철저히 책임 짓도록 묻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출애굽기 21:20-21 에 나타난 즉각적 사망과 지연된 사망의 구분은 인간 가치의 위계질서가 아니라, 사형 사건에서의 "증거적 확실성"에 대한 토라의 정밀하고 지체없는 자비를 반영합니다. 현인들의 해석은 일관되게 가해자인 주인의 면책 범위를 좁히고, 종의 인권을 철저히 보존하며, 엄격한 정의(din)와 절차적 절제 사이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구절은 약자를 가해한 주인의 폭력을 절대로 정당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권력 남용을 법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그들의 잔혹함을 막아내며, 가장 취약한 자들까지 여호와 엘로힘의 공정의 속성 안에서 최상의 안전과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토라의 근본적인 정신과 그에 연계된 노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례입니다.

샬롬.